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569>

JCCT 2024-9-67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mpathy, Social Support,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Career Choice Commitment in Nursing Freshmen

이혜경*

HyeaKyung Lee*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 1개 대학과 경북의 1개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 153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연구결과 전공선택몰입의 설명력은 46.3%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4.71, p<.001$).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전공만족도($\beta=.50, p<.001$), 공감능력($\beta=.25, p<.001$), 대학만족 더미2(보통) ($\beta=-.13, p=.042$) 순이었다. 본 연구결과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 후 반복연구를 제언하며, 간호대학 신입생 외 학년별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학년별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주요어 : 간호학과 신입생,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진로선택몰입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 commitment in nursing freshmen, focusing on empathy, social support, and major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3 nursing freshmen from one university in Chungbuk and one university in Gyeongbuk.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ne 3 to June 15, 2024, and the questionnaire took about 30 minutes to complet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explained 46.3% of the variance in career choice commitment, and the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44.71, p<.001$).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in order, major satisfaction ($\beta=.50, p<.001$), empathy ($\beta=.25, p<.001$), and university satisfaction dummy 2 (average) ($\beta=-.13, p=.042$).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o conduct further repeated studies to identify various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 commitment. Additionally, it is suggested to develop customized career exploration and employment programs by grade level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career choice commitment in nursing students beyond freshmen.

Key words : Career Choice Immersion, Empathy, Major Satisfaction, Nursing Freshmen, Social Support

*정회원,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6월 7일, 수정완료일: 2024년 7월 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일

Received: June 7, 2024 / Revised: July 1, 2024

Accepted: September 1, 2024

*Corresponding Author: lee-hk1214@hanmail.net

Dept. of Nursing, Junwon Universit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부가 임상간호사 부족과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1]. 이에 대한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을 2024년 23,883명에서 2025년 24,883명으로 1,000명 증원한다[1]. 그러나 2023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9만 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9만 명으로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52.9%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희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다[1].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1], 이들이 전문간호인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이 없는 간호학과의 특성상 전공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적성에 대한 고려없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추천으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성의 불일치 등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2].

진로선택몰입은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진로목표와 동일시하여 가지는 진로선택에 대한 애착과 확신을 의미하며[3], 진로선택몰입이 부적절하게 형성되는 경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는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4,5]. 따라서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및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임상실습현장에서 대상자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진과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다[6].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면 본인의 마음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7].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공감 능력이 높으면 대인관계 능력 및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도 높았다[8] 이처럼 공감능력은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진로학습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개인의 환경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9].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며[10],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1].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학습효과 향상,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 및 방향을 갖게 하며[12], 전공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전공교과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의 병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이 높으며, 이는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13]. 또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의 진로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선택에 있어서 진로결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13]. 따라서 신입생 시기부터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선택몰입의 정도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선택몰입 향상 및 신중한 진로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1)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의 정도를 분석한다.

2) 간호학과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차이를 분석한다.

3)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 1개 대학과 경북의 1개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동의하고 설문지에 서명한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대상자 수는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0.80 예측요인 11개를 적용하여 G*Power 3.1.9.7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23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명을 임의 표출하였으며 작성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153부를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진로선택몰입

Blustein et al.[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직업적 탐색 몰입 척도(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urvey)를 Choi가 번안하고 Kim[1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3$ 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으로 나타났다.

2) 공감능력

공감 능력은 Davis[16]의 대인 간 반응성 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강일 등[17]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IRI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은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1점에서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강일 등[17]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이[18] 개발한 척도를 유은경과 설현수가[19]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은경과 설현수의[19]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혜숙이[20] 작성한 학과만족 도구 중 이동재가[21] 전공만족 관련 문항만 선택하여 사용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혜숙[20]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는 .92.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명과 함께 자료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전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사전회의를 거쳐 자료수집방법과 연구목적 등을 교육하였고 예상되는 질문과 응답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총 170부를 배포하여 회수가 되지 않았거나, 응답 누락 및 자료 분석이 어려운 17부를 제외한 153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5. 윤리적고려

본 연구를 위해 각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및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종료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자의 개인연락처를 제공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구하였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이 41명(26.8%) 여학생이 114명(73.2%)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고, 종교는 없는 학생이 115명(75.2%)으로 더 많았으며, 친구가 있는 학생은 136명(88.8%), 없는 학생은 17명(11.1%)로 나타났다. 대학 만족도는 '만족'인 학생이 86명(56.2%)로 가장 많았고, '보통' 57명(37.3%) '불만족' 10명(6.5%) 순이었다. 전공만족도 또한 '만족'인 학생이 118명(77.1%)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32명(20.9%), '불만족'이 3명(2.0%) 순이었다. 학과적응의 경우 잘하고 있는 학생은 76명(49.7%), 노력 중인 학생도 76명(49.7%)이었고,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은 1명(0.7%)이었다. 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적성 고려'가 70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률 고려' 52명(34.0%),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권유'는 28명(18.3%), 기타 3명(2.0%) 순이었다<Table 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Sex	Male	41(26.8)
	Female	112(73.2)
Religion	Yes	38(24.8)
	No	115(75.2)
Friends	Yes	136(88.9)
	No	17(11.1)
University Satisfaction	Satisfied	86(56.2)
	Average	57(37.3)
	dissatisfied	10(6.5)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118(77.1)
	Average	32(20.9)
	dissatisfied	3(2.0)
Adaptation to the department	Good	76(49.7)
	Trying to	76(49.7)
	Difficult	1(0.7)
Major - selection Motivation	Considering one's aptitude	70(45.8)
	Recommendation from teachers and parents	28(18.3)
	Considering the employment rate	52(34.0)
	Etc	3(2.0)

2.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3.61점(1~5점), 사회적지지 4.07점(1~5점), 전공만족도 3.74점(1~5점), 진로선택몰입은 3.57점(1~5점)이었다<Table 2>.

표 2.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mpathy, Social Support,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Variable	M±SD	Range
Empathy	3.61±.33	1~5
Social Support	4.07±.50	
Major Satisfaction	3.74±.35	
Career Choice Commitment	3.57±.36	

3. 일반적특성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종교, 친구, 전공만족도, 학과적응, 전공선택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학만족도의 경우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52, p=.005). 사후분석결과 대학만족도는 '만족'인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표 3. 일반적특성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Career Choice Commi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SD	t or F	p
Sex	Male	3.51±.34	-1.30	.195
	Female	3.59±.37		
Religion	Yes	3.64±.37	1.36	.173
	No	3.55±.36		
Friends	Yes	3.57±.36	.35	.723
	No	3.54±.37		
University Satisfaction	Satisfied ^a	3.65±.36	5.52	.005 a>b
	Average ^b	3.45±.33		
	dissatisfied ^c	3.57±.3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61±.37	2.62	.076
	Average	3.46±.31		
	dissatisfied	3.35±.27		
Adaptation to the department	Good	3.59±.39	.23	.793
	Trying to	3.55±.33		
	Difficult	3.47		
Major - selection Motivation	Considering one's aptitude	3.62±.42	1.83	.143
	Recommendation from teachers and parents	3.57±.29		
	Considering the employment rate	3.49±.29		
	Etc	3.85±.42		

4.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진로선택몰입은 공감능력($r=.502, p<.001$)과 사회적지지($r=.308, p<.001$), 전공만족도($r=.618, p<.001$)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선택몰입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Table 4>.

표 4.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전공선택몰입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Empathy, Social Support,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hoice Commitment

Variable	Empathy r(p)	Social Support r(p)	Major Satisfaction r(p)	Career Choice Commitment r(p)
Empathy	1			
Social Support	.461** <.001	1		
Major Satisfaction	.399** <.001	.377** <.001	1	
Career Choice Commitment	.502** <.001	.308** <.001	.618** <.001	1

5.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회귀분석의 가정 검증을 위하여 다중공선성과 잔차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VIF 값이 1.138~1.346으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독립성을 Durbin-Watson으로 확인한 결과 1.684로 나타나 잔차의 상호독립성이 만족되었다.

연구결과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의 전공선택몰입 설명력은 46.3%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4.71, p<.001$).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전공만족도 37.7%($\beta=.50, p<.001$), 공감능력 7.5%($\beta=.25, p<.001$), 대학만족도(미2(보통) 1.1% ($\beta=-.13, p=.042$) 순이었다.

표 5.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 Commitment

Variables	Category	B	SE	β	t	p
Constant		.74	.28		2.56	.011
Major Satisfaction		.49	.06	.50	7.77	<.001
Empathy		.28	.07	.25	3.70	<.001
University Satisfaction	Average	-.099	.04	-.13	-2.05	.042
$R^2=.474, Adjusted R^2=.463, F=44.71, p<.001$ Durbin-Watson=1.684						
Dummy variable: University Satisfaction(Dissatisfied)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전공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은 3.61점(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Oh 등[21]의 연구에서 3.46점(1~5점)이었고,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2]의 연구에서는 3.39점(1~5점)이었고, Kim 등[23]의 연구에서 3.49점(1~5점)이었다. 이처럼 공감능력의 정도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4학년보다는 신입생의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Oh 등[21]의 연구에서 3.46점(1~5점)으로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23]의 연구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학년 간에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학년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정도가 높은 이유로는 기숙사생활로 인한 친구 및 선배 간의 잦은 접촉, 시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친구들과의 유대감 등의 형성이라고 판단된다.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13]의 연구에서 3.95점으로 유사한 결과이다.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24] 사회적지지 3.55점(1~5점)으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1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신입생의 사회적지지 높은 이유는 대학생으로의 변화로 인한 가족들의 학과 및 학교적응을 위한 학과 및 교수의 관심, 친구들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설레임 등으로 인해 사회적지지에 대한 정도가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만족도는 3.74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13] 4.23점(1~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2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5] 3.94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으며, 간호학과 2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26] 3.80점(1~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신입생의 경우 전공 교과목 수업이 적고,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차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학년 별 전공만족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전공선택몰입은 3.57점(1~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36점(1~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다[27]. 또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4] 3.13점(1~5점)으로 간호학과 대학생의 전공선택몰입보다 낮았다. 이처럼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과의 특성상 취업률이 매우 높고 학과 입학과 함께 진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 활동 개발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공선택

몰입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종교, 친구, 전공만족도, 학과적응, 전공선택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학만족도의 경우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대학만족도는 '만족'인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이 최근 대두되면서[27]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몰입과 대학만족도와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7] 진로선택몰입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진로선택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종교, 친구, 전공만족도, 학과적응, 전공선택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결과 또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몰입과 일반적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im[28]의 연구에서 전공에 만족한 학생이 불만족, 보통인 학생에 비해 대학 생활 적응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대학 및 학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학교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진로선택몰입과 일반적 특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 신입생의 공감능력은 대학생생활적응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영향요인으로도 파악되었고[2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3]. 사회적지지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진로

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확인되었고[13],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적응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24]. 전공만족도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확인되었다[13]. 진로선택몰입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7]. 이처럼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웠으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들이 대학 및 학과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진로선택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 후 후속연구를 통해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와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전공만족도, 공감능력, 대학만족 순이었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선택몰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전공만족도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이 높았다.

간호대학 신입생의 공감능력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 영향요인으로도 파악되었고[2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3]. 사회적지지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확인되었고[13], 전공만족도 또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3]. 진로선택몰입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7]. 이와 같이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파악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 및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는 진로선택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과 차원의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몰입의 정도를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간호대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졸업 시 까지 잘 계획하고

몰입하여 전문간호인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선택몰입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선택몰입 간의 관계를 구명하고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개의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 후 반복연구를 제안하며, 간호대학 신입생 외 학년별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학년별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February 8, 20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237&act=view
- [2] N.J. Je, and M.R. Park, "Impac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0, pp. 300-312. DOI: 10/5762/KATS.2018.19.10.300
- [3] T.H. Kim,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assessi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or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2, pp. 47-78, 2019. DOI: 110.32341/JCER.2019.06.32.2.47
- [4] M.R. Jeon, "The Effects of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Personality Factors on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al Self-efficac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9, No. 4, pp. 1-24, 2020. DOI: 10.37210/JVER.2020.39.4.1
- [5] Y.H. Lim, and Y.S. Lee, "Exploring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f First-year Students Living on Campus: Focusing on Their Relationships,"

-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48, pp. 111-131, 2019. DOI: 10.20993/jSSW.48.5
- [6] N.H. Kim,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6, pp. 735-744, 2018. DOI : 10.35873/ajmalhs.2018.8.6.068.
- [7] M.J. Bae, and H.I. Jo,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Cognitive/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6, pp. 2417-2435, 2014. DOI :10.15703 /kjc.15.6.201412.241
- [8] M.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 17, No. 5, 95-103, 2016. DOI :10.5762/KAIS. 2016.17.5.95.
- [9] O.H. Lee,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1, pp.29~57, 2012.
- [10] S.A. Bae, and S.Y. Su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 pp. 859-877, 2019.
- [11] J.U. Kim, and J.H.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3, No.9, pp.248-259, 2013. DOI: 10.5392/JKCA.2013.13.09.248
- [12] I.O. Moon, and G.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83-91, 2010. DOI: 10.5977/JKASNE.2010.16.1.083
- [13] S.A. Park, and K.S. Shin, "Effect of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2, pp. 592-601, 2023. DOI: 10.5762/KAIS.2023.24.2.592
- [14] D.L. Blustein, M.V. Ellis, and L.E. Deveni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35, No. 3, pp. 342-378, 1989. DOI: 10.1016/0001-8791(89)90034-1
- [15] T.H. Kim.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 Autonom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rom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16] M.H. Davis,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pp. 85-103, 1980.
- [17] I.Kange et 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8, No. 5, pp. 352-358, 2009.
- [18]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5.
- [19] E.K. Yu, H.S. Seol,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A Research Study*, Vol. 16, No. 1, pp. 155-184, 2015.
- [20]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0.
- [21] Y.H. Oh, and M.S. Park, "Influence of Interpersonal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Freshman in Nursing Colleg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8, pp. 331-341, 2020. DOI: 10.14400/JDC.2020.18.8.331
- [22] R.W. Kim. "Effects of Empathy, Critical Thinking Skill and Nursing Perception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2017.
- [23] M.Y. Kim, and E.K. Byun,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Resilience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1, pp. 105-113, January, 2022. DOI:10.17703/JCCT.2022. 8.1.105
- [24] Y.S. Seo, and C.Y. Jeong, "The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ollege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5, No. 4, pp. 1040-1047, 2017. DOI: 10/15205/kschs.2017.12.31.1040.
- [25] S.H. Shin, J.W. Lee, S.H. Shin, and C.T. Kim, "The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0, pp. 95–107, 2021. DOI:10.5762/KAIS.2021.22.10.95
- [26]S. J. Kim, “An association of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of nursing students on academic stress, depression and major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23.
- [27]B.J. Hwang, and H.O. Park, “The Effects of Personality, Ego-resilience,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ew Nursing Students from Various Region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9, No. 1, pp. 49–58, 2023. DOI: 10.14370/je wr.2023.29.1.49
- [28]M.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560–568, 2016, DOI: 10.5762/KAIS.2016.17.8.560